

인천지역 제조업의 미래 신사업 추진실태 조사

2025. 8



INCHEON CHAMBER OF COMMERCE & INDUSTRY

SECTION I. 조사개요 2

SECTION II. 조사결과

1. 인천지역 제조업의 주력사업 현황 2
2. 인천지역 제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 3

SECTION III. 시사점 6

- [그림 목차]
- <그림 1> 주력사업(제품)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 2
 - <그림 2> 주력사업(제품)의 전반적인 경쟁 상황 3
 - <그림 3> 주력사업을 대체할 신사업 착수 또는 검토 여부 3
 - <그림 3-1> 착수 또는 검토한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 형태 4
 - <그림 3-2> 착수 또는 검토한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에 대한 성과와 기대 4
 - <그림 3-3>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 착수하지 않거나 검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 5
 - <그림 4>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5

I

조사 개요

- 조사목적
 - 인천지역 제조업의 주력사업 및 제품과 신사업 현황을 파악하고, 정부 대책 수립에 의견을 개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조사기간 : 2025. 5. 30(금) ~ 6. 13(금)
- 조사방법 : 이메일 및 팩스 조사
- 응답기업 : 인천지역 소재 기업 182개사
-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 $\pm 7.11\%p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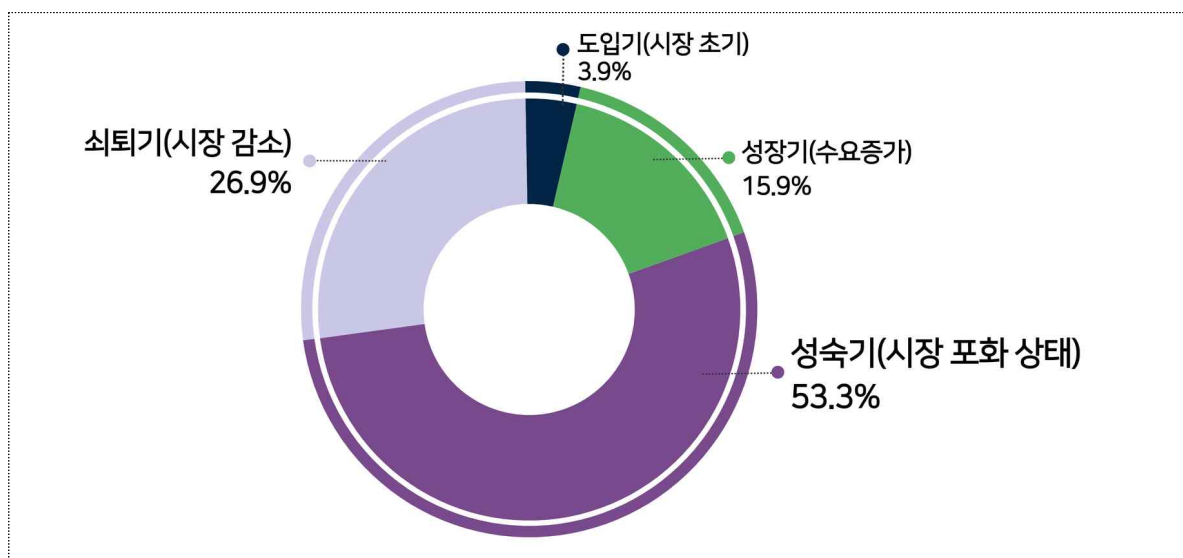
II

조사 결과

1. 인천지역 제조업의 주력사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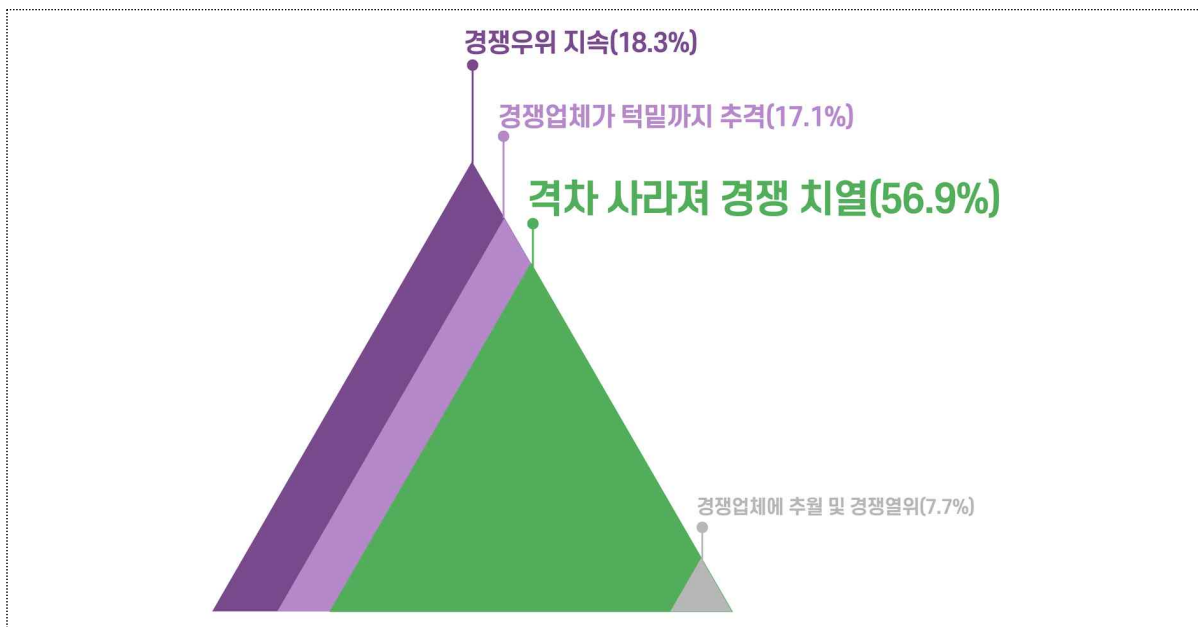
- 인천지역 기업의 53.3%는 주력사업(제품)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‘성숙기(시장 포화 상태)’에 있다고 응답했으며, 26.9%는 ‘쇠퇴기(시장 감소)’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함
- 주력사업(제품)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‘성장기(수요 증가)’라고 평가한 기업은 15.9%로 나타났으며, ‘도입기(시장 초기)’라고 응답한 기업은 3.9%에 그침

<그림 1> 주력사업(제품)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



- 응답기업의 56.9%는 주력사업(제품)이 경쟁업체와의 ‘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’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어 ‘경쟁우위 지속’(18.3%), ‘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’(17.1%), ‘경쟁업체 추월 및 경쟁열위’(7.7%) 순으로 시장 내 경쟁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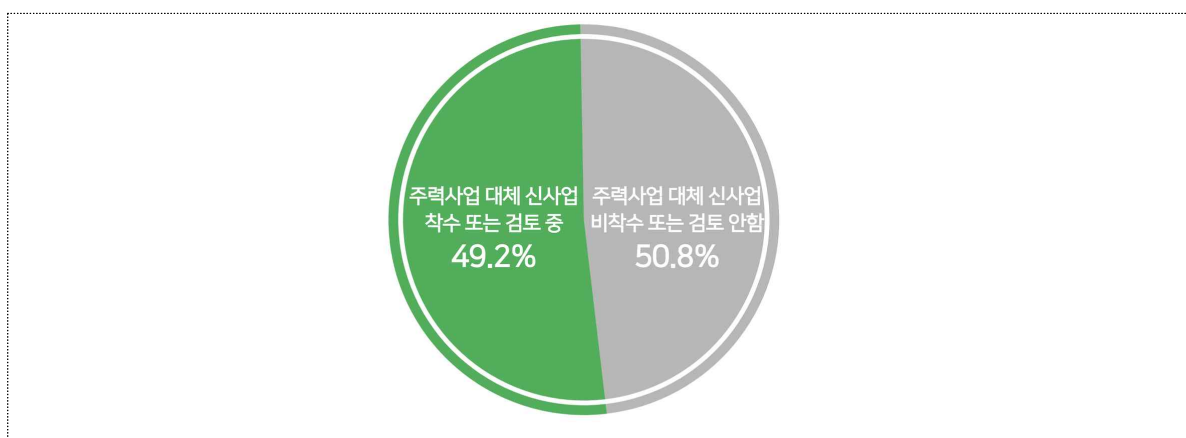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주력사업(제품)의 전반적인 경쟁 상황



2. 인천지역 제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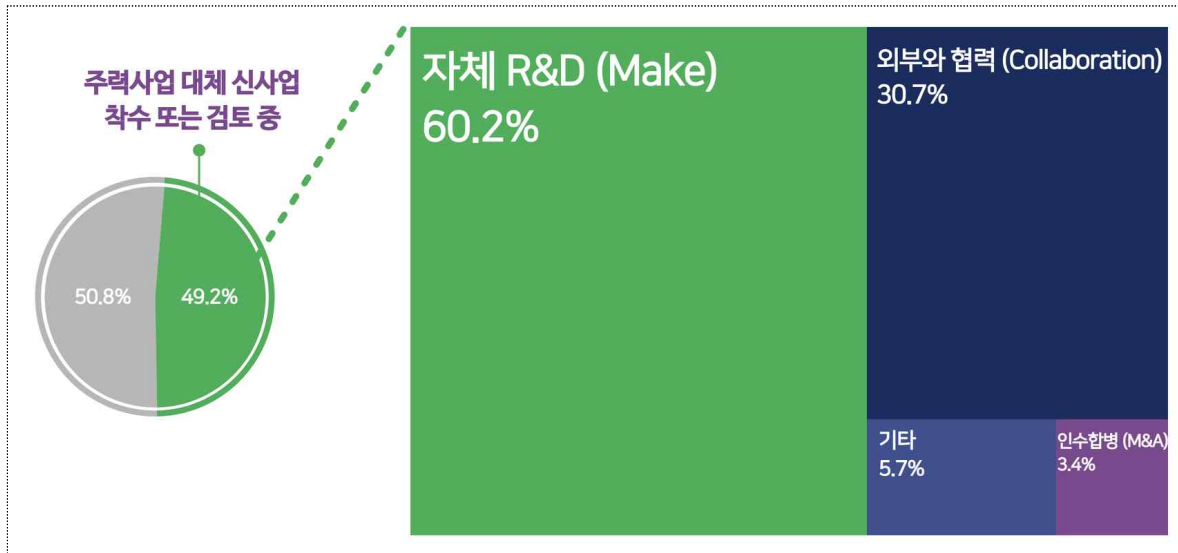
- 시장 포화 및 쇠퇴에 대비하여, 주력사업을 대체할 신사업을 ‘착수하지 않거나 검토 하지 않은’ 기업은 50.8%로 조사되었으며, ‘신사업 착수 또는 검토 중’인 기업은 49.2%로 나타남

<그림 3> 주력사업을 대체할 신사업 착수 또는 검토 여부



-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을 착수 또는 검토 중인 기업(49.2%)의 신사업 형태는 ‘자체 R&D’(60.2%)가 가장 많으며, 그 다음으로 ‘외부와 협력’(30.7%)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‘인수합병’은 응답기업의 3.4%에 그침

<그림 3-1> 착수 또는 검토한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 형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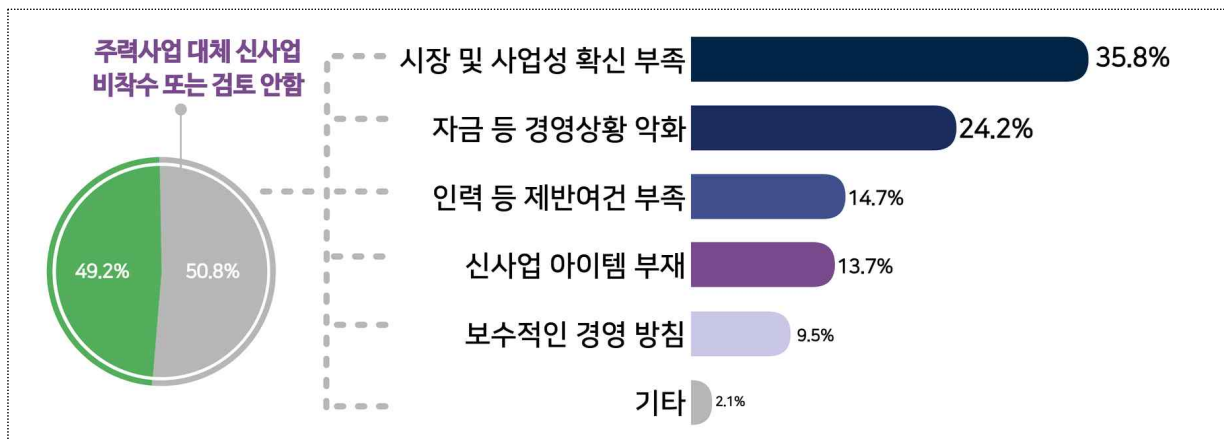
-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을 착수 또는 검토 중인 기업(49.2%)의 34.1%는 신사업에 대한 성과와 기대를 ‘아직 판단하기 어렵다’고 응답했으며, 22.7%는 신사업이 ‘계획대로 추진되어 성과를 기대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어서, ‘초기 시장반응 미미’(17.0%), ‘내부요인으로 추진 차질’(10.2%), ‘이미 시장성과 창출 중’(8.0%), ‘외부요인으로 추진 차질’(8.0%)순으로 조사됨

<그림 3-2> 착수 또는 검토한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에 대한 성과와 기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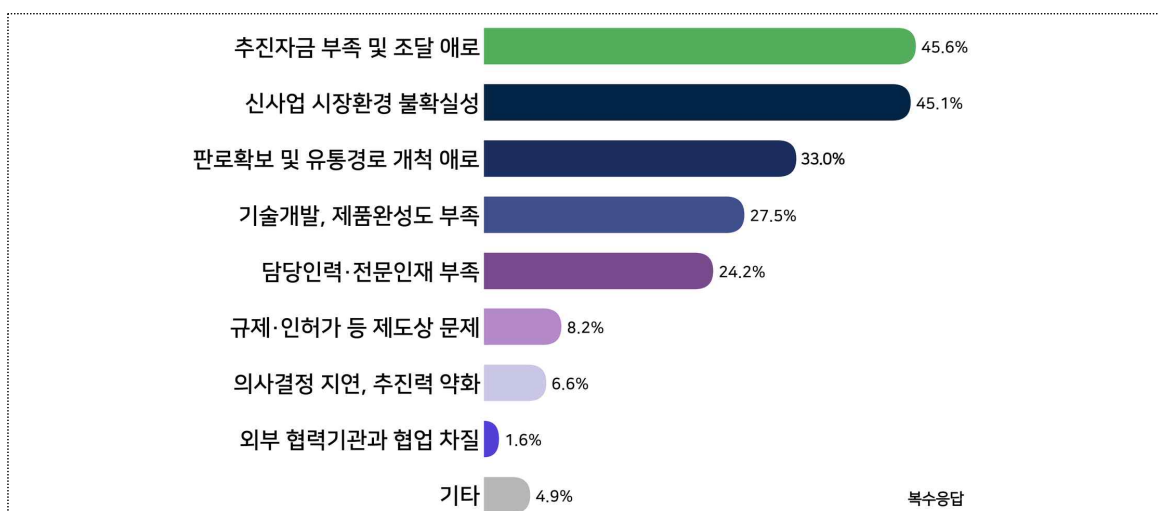
-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검토를 하지 않은 기업(50.8%)이 신사업 착수하지 않거나 검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‘시장 및 사업성 확신 부족’(35.8%)으로 조사됨
- 다음으로, ‘자금 등 경영상황 악화’(24.2%), ‘인력 등 제반여건 부족’(14.7%), ‘신사업 아이템 부재’(13.7%), ‘보수적인 경영 방침’(9.5%) 순으로 나타남

<그림 3-3> 주력사업 대체 신사업 착수하지 않거나 검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



-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‘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 애로’가 45.6%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함
- 이어서, ‘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’(45.1%), ‘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’(33.0%), ‘기술개발, 제품완성도 부족’(27.5%), ‘담당인력·전문인재 부족’(24.2%), ‘규제·인허가 등 제도상 문제’(8.2%), ‘의사결정 지연, 추진력 약화’(6.6%), ‘외부 협력기관과 협업 차질’(1.6%) 순으로 응답함

<그림 4>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



Ⅲ 시사점

-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은 주력사업의 시장이 성숙기(53.3%) 또는 쇠퇴기(26.9%)에 진입하고 있으며, 과반수 이상(56.9%)이 경쟁 격화를 체감하고 있음
- 이는 주력사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, 제조업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
- 신사업을 착수 또는 검토한 기업(49.2%)은 신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고('판단 어려움' 34.1%), 추진 과정에서 자금 조달, 시장 접근, 기술 완성도, 전문 인력 확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
- 특히, '추진 자금 부족 및 조달 애로'(45.6%)와 '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'(45.1%)은 신사업 전환에 있어 가장 큰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민간 기업의 자율적 대응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임
- 이에 따라, 인천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·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, 판로 확보,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